흩어진 인천의 기록을 하나의 공간으로

AI와 만든 기록 박물관 TIMEPORTAL

ChatGPT·Codex와 수집기, 데이터와 관람 경험을 만들고 실제 실행으로 고쳤습니다.



공개 주소의 실제 전시 화면

사진을 찾은 뒤에도, 확인할 일이 남았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경로

검색 방법과 자료 형식,
사진 제공 방식이 다릅니다.

사진과 날짜의 관계

자료의 시기와 실제 촬영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공개된 사진도 개별 조건과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록들을 한 공간에서 관람하고,
다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AI의 결과를 실제 응답·파일·화면과 대조했습니다

불편과 제약 설명	AI와 코드 구현	실제 자료 수집·보존	오류와 화면 확인	수정 후 재검증

저장 바이트까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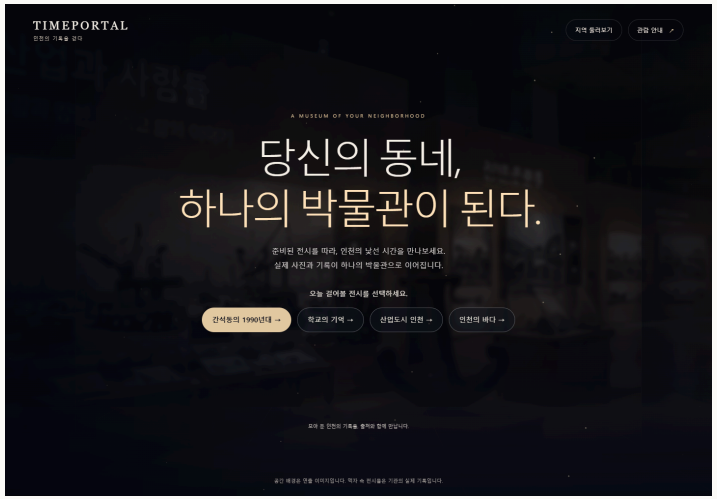
Windows 줄바꿈으로 생긴 해시 불일치를 수정하고 재처리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관람 경험까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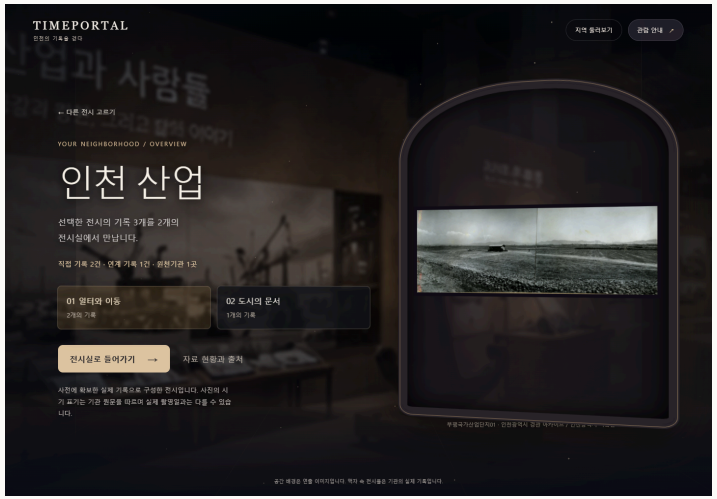
공간감 피드백, 검색 범위, 모바일 글씨와 가로 화면을 실제 화면으로 고쳤습니다.

AI는 개발·검증에 활용했습니다. 관람 중에는 LLM을 호출하거나 역사 설명을 새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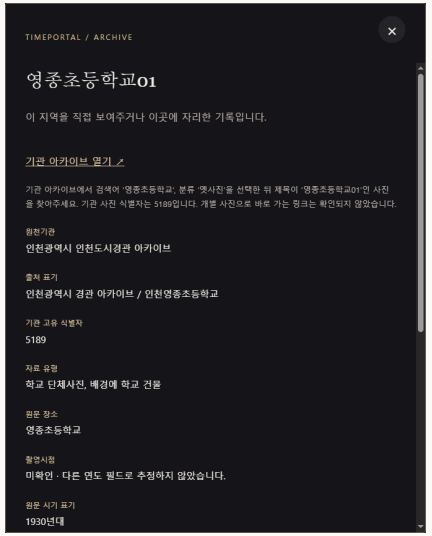
준비된 전시를 고르고, 기록의 출처까지 봅니다



1. 검색창 없이 준비된 전시 선택



2. 형성 연출을 거쳐 로비와 전시실 선택



3. 사진의 기관·식별자·원문 확인

간석동의 1990년대 · 학교의 기억 · 산업도시 인천 · 인천의 바다. 지역 목록에서도 확보한 기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구분	확인한 범위	해석
공개 관람본	17기록 · 17이미지 · 2기관	개별 출처와 표시 조건을 확인해 포함
수집 시스템	등록 7기관의 제한 표본	실제 이미지 저장과 반복 갱신 경로 검증
최근 추가 5기관	23레코드 · 15파일	각 파일3회 다운로드 해시 일치, 공개 미편입

기관 전체 자료를 수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자 제공 XML10만 행도 새 웹 사진 수집량으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한 뒤에도, 작은 화면에서 다시 고쳤습니다



수정 전: 가로 화면에서 제목과 설명이 사진에 겹침



수정 후: 제목·사진·설명이 문서 흐름을 따라 배치

모바일 글씨·버튼 보완, 전시실 이동 화살표 잘림 수정. 공개 주소의8개 모바일 터치 환경과 데스크톱, 글자 간격 확대를 검증했습니다. 물리적 휴대폰·Safari 실기기 시험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만들어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공	현재 제공하지 않는 것
준비된 전시4개와 지역별 확보 기록	어떤 검색어든 이해하는 자유 검색·실시간 생성
사진별 관찰, 기관 원문과 이용조건	방문 중 외부 신규 자료 수집·AI 해설
원문 시기와 촬영일 미확인 구분	근거 없는 촬영일·검증되지 않은 시간 비교

확정 촬영일0개 · 승인 비교쌍0쌍. 모든 동네의 충분한 사진, 일반 이용자 효과와 교육 성과는 아직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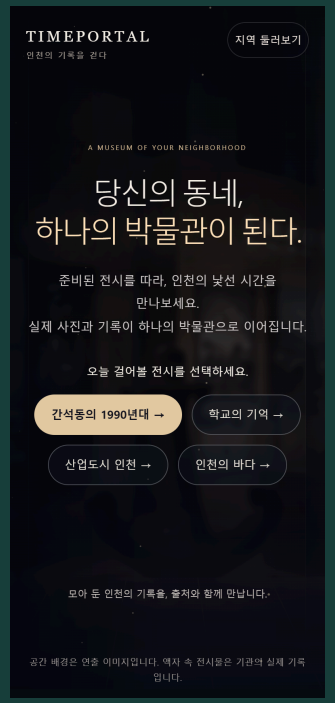
공개 주소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timeportal-incheon-museum.pages.dev

전시 선택 → 로비 → 전시실 입장

사진 전체 보기 → 출처와 기록 읽기

로그인·AI API 키 없이 관람합니다.
인천의 실제 기록을 모으고 확인해 공개한 제작 사례입니다.



공개 관람본의 모바일 크기 입구